

#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 《완전변태 그림교과서 시리즈》

## 만화콘텐츠와 '1318' 은 만날 수 있을까?

글\_ 김준호 청소년 도서평론가

지금의 대한민국 1318들은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만화를 보며 자란 첫 세대라고 해도 좋겠다. “만화를 볼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서 출세할 생각을 하라”

던 부모 세대의 다그침에 만화를 봐도 몰래 봐야 했던 386세대의 어린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학습만화 열풍이 불면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기 위해 만화를 본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00년 초반 출간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만화의 트

랜드를 열었고, 《마법 천자문》(아울북)은 아동만화의 붐을 본격적으로 선도했다. 그리고 이젠 시중에 있는 서점의 아동만화 코너를 다양한 스타일의 만화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하며 채우고 있는 지경이다.

아동만화의 풍성한 콘텐츠 풀에서 놀았던 어린이들은 이제 1318세대, 즉 청소년의 계단으로 올라왔다. 아동만화 시장이 커졌고, 주 독자였던 이들이 청소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제 청소년 출판 시장에 관심이 높은 출판사들일수록 청소년 만화 분야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출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괴물’, 즉 대학 입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를 벗어나 고작 몇 살만 더 먹어도 ‘청소년’의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입시 공부를 요즘은 중학생 때부터 본격화하다 보니 학생들이 만화를 편히 볼 여유가 없고, 문제집 대신 만화를 뒤적이는 자녀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선이 고울 리도 없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1318을 겨냥한 본격적인 청소년 만화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지식·문화콘텐츠를 다루는 출판 시장에서는 장애물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친절하게 도와주는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이하 《직업의 세계》, 동아일보사)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  
10년째 시리즈 (동아일보사) 1994년 창간 10주년

### ●이 글을 쓴 김준호는

단행본 출판 에이전시 '서울출판정보' 대표, 10대 대상 신문과 잡지기자, 《한국고교신문》 편집장을 역임했다. 청소년 도서의 저자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한 책으로 《이범의 공부에 반하다》(한스미디어), 《10대의 꿈을 실현해주는 진로코칭》(북하우스) 등이 있고, 저술한 책으로 《영어에 성공한 사람 13인이 털어놓는 영어학습법》(홍익미디어), 《명강사 13인의 7차 수능공략》(한경 BP) 등이 있다.

시리즈, 그리고 교과서와 만화를 접목시켜 공부와 만화의 유쾌한 만남을 이룬 고교생용 학습만화 《완전변태》(플러스에감) 시리즈는 바로 이런 '역발상'의 만화책이기에 돋보인다.

《직업의 세계》는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 선택을 위해 10년 후의 유망 직업 100개를 선정해 만화로 엮은 책이다. 이보다 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기에 적합한 만화적 소재가 있을까. 특히 진로와 직업에 대한 콘텐츠가 크게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말이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김영사)를 모르는 독자들도 거의 없으리라. 이 책은 이제 9개국 12권으로 시리즈를 마감했지만 내레이션 만화의 대표주자로 대중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 《직업의 세계》 역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내레이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진로교육 전문 기관인 '와이즈멘토'가 오랜 상담 경험과 과학적인 미래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엄선한 직업 100개를 소개한다. 한 권당 20개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3권이 나왔으니 앞으로 2권만 더 나오면 완간이다. 아니, 대중들의 호응이 있다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직업의 세계가 방대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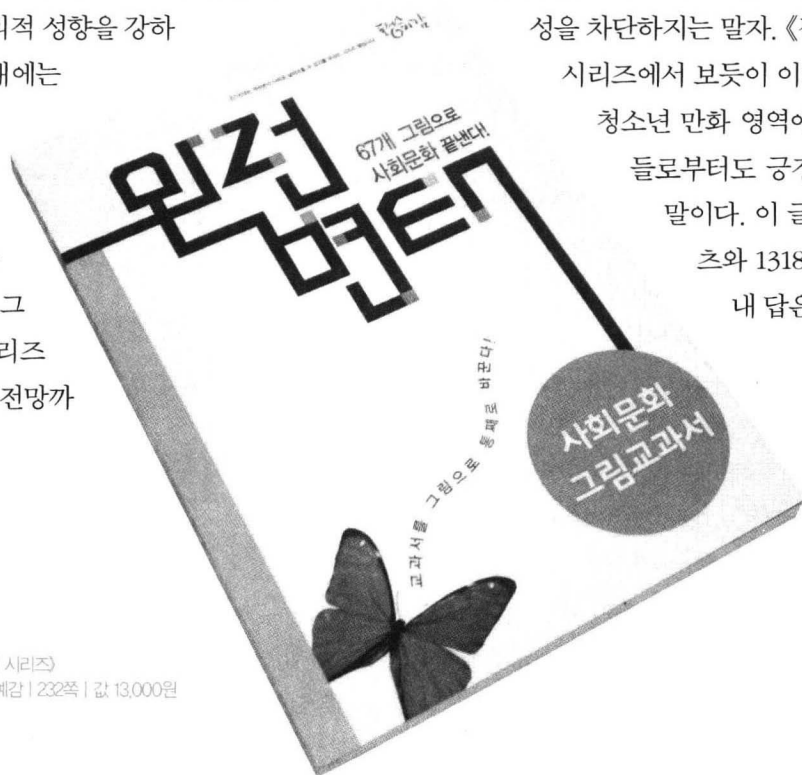
《직업의 세계》는 유망 직업 종사자들의 일상을 다루고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줄거리 위주의 재미를 쫓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실용서가 인기를 얻는 출판 시장의 흐름에서 보듯, 요즘은 청소년까지도 현실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이 시대에는

이런 직업 관련 만화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독자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리즈는 가치 있으면서도 전망까지 밝다고 하겠다.

또 다른 책 《완전변태》를 살펴보자. 이 책은 '그림교과서'를 표방한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만화란 점이 이색적이다. 그동안 고교생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학습만화가 없는 가운데, 우주공간의 고교생 학습만화 시장에 선도적으로 깃발을 꽂은 것이다. 물론 사회탐구 문제도 가미하고 학습요약도 들어간 교재 성향이 학습만화로는 너무 강하게 노출된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완전변태》시리즈의 강점 역시 분명하다. 교과서라면 글로 길게 서술될 내용을 만화 구성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압축, 흥미롭고도 인상적으로 주요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한 점이 두드러진다. 아마도 공부에 통 흥미를 갖지 못하는 중하위권 학생 독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시리즈가 아닌가 한다. 한국지리 편만 예로 들어도, 뉴스에서 보던 농촌 지역의 문제와 대책이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다양한 생활권의 특성 등을 쉽고 재미있게 한눈에 익힐 수 있다. 이것은 학습만화만이 가진 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일부 학생들을 보면 공책은 아예 가져오지도 않고, 그나마 교과서라도 가져와서 그 위에 필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그림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한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굳이 교과서에 낙서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만화가 교과 내용과 조화를 이루며 웃음을 주니 말이다. 만화와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1318이다. '청소년 만화 시장은 대학 입시란 벽으로 인해 설 자리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말자. 《직업의 세계》와 《완전변태》시리즈에서 보듯이 이미 일부 저자와 출판사들은 청소년 만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독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이 글 제목으로 내건 '만화콘텐츠와 1318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내 답은, 그래서 '당근'이다. **김민**



《완전변태 그림교과서 시리즈》  
조선호 등저 | 플러스에감 | 232쪽 | 값 13,000원